

전반기 감사 보고서

Ω 회계감사

Ω 행정감사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계감사 보고서

(7/1/01 - 6/30/02)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19대 총연 전반기 회계감사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아 래

1. 수입, 지출 내역 (별지 참조)
2. 은행 잔고 (6/30/02)
3. 장부 정리 현황
4. 회관건립기금 관리 현황
5. 기타

▶ 수입 내역을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을 일일이 점검한 결과, 일반회비 \$ 5,200.00, 특별회비 \$ 76,450.00 로 전체 예상 회비수입 \$384,0000.00의 21%에 해당하는 저조한 납부 실적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처에 접수된 회비 납부 자에게는 영수증이 정확히 발송되고 있었으며, 지출사항에 대해선 일일이 영수증과 발행한 Check을 대조해 본 결과 이상없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인 수입·지출과 행사별로 별도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반기 재무감사 광경

▶ 제19대에 접수된 회관 건립 기금은 필라델피아 소재 WSFS (9월 13일부터 Penn Asia 은행과 합병으로 은행 이름이 바뀔 예정.)에 이오영 회장 \$20,000, 코카콜라 \$20,000, 이승희 회장 \$5,000 (Total \$45,000 + 이자 \$ 295.27 as 8/16/02)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름아래 이오영 회장과 한진구 재무이사 공동 명의로 구좌를 개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8대까지 보관된 건립 기금은 메릴랜드 소재 Chevy Chase Bank 9/7/01 현재로, 구좌번호: 013-459719-2에 \$85,538.94 & 구좌번호 013-437194-1에 \$2,794.50로 2중 구좌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으나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관 건립 기금 구좌 단일화 문제는 이번 4차 합동회의에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2년 3월 9일 제 18대 김길남 회장이 이월금조로 보내준 Check가 아직 총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18대가 끝난 지 약 9개월이 지나도록 전임자가 총연 구좌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즉시 Close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위 이월금 \$ 2,400.00 에 대해 12명의 회원이 19대 회비를 18대에서 선납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회비 납부 Cancel Check를 인수 받지 않아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2002년 8월 24일

감사 강 봉 희 _____ (사인) 감사 나 광 열 _____ (사인)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행정 감사 보고서

(7/1/01 - 6/30/02)

1. 사무실 : 이오영 총회장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Professional Office Bldg. 내 1,300SQF 정도 크기의 사무실을 대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 업무일지 :

1) 전화 접수 현황을 업무일지 원장에 정확히 기록함은 물론, Full Time으로 업무일지 기록, 문서수발, 안내, Book Keeper역할을 담당하는 직원 1명, 컴퓨터실 운영을 위해 Part time직원 1명, 자원 봉사자 2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2) On Line

(총연의 업무일지를 웹사이트 활동일지에 공지하여 신속한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3) Off Line

(우편 공문과 Fax, 그리고 총연 신문을 통해 업무일지를 수시로 공지하고 있었다.)

3. 행정업무

1) 지난 1년 간 200여 통의 우편 및 Fax 발송 공문과 212여 통의 접수 공문을 비롯하여 Web Site를 활용, 홍보를 확산해 나가면서 대화광장을 검토, 질의에 답하는 등 업무의 과중으로 유급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감사보고를 하고있는 강봉희 감사

2) 현재 훈련되어 있는 직원을 회장이 바뀌어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을 때에도 연속적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4. 문서 관리 -

1) 발송 철과 접수 철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보관함에 잘 보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발송과 접수 대장이 정확히 분리, 보관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업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E-mail갓기 운동을 전개하여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사무처의 문서 수발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2) 각 공문마다 공문의 Page가 확인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ex. 3page일 경우 3-1, 3-2, 3-3으로 장마다 표기.)

5. Web Site

1) 1단계 사업으로 총연 소유의 Domain Name(www.koreanfedusa.org)으로 Homepage를 개설하여 아직은 150개 지역 한인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Net Work를 구축하고 있었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대화의 광장이나 사업보고와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며, 발전시키고 있었다. 현재 영역 홈페이지를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단계 사업으로 영문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Portal Site를 구축하여 국내·외는 물론 외국인들 및 모국까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보 센터화를 준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위 2단계 Portal Site(검색엔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과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6. 제18대와의 인수인계 사항

1) 제 18대 선거 관리 위원장(위원장 이상호)이 관리한 공탁금 \$20,000 중 \$ 13,009.46을 사용, \$6,990.54를 이월했음을 확인했다.

* 역대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등록금 인수현황을 참고하면, 제16대(경선) \$ 40,000.00 중 \$24,602.12, 제18대(선거 중반전 1명 등록 취소로 단일후보) \$ 40,000.00 중 \$32,035.00 와 비교할 때, 단일 후보 경우 치고과다 지출이 지적된다. 선거관리 운영세칙 제4조에 명시된 “총연 봉사자의 기본 정신에 준해서 지출되어야 하며, 공금으로 총회참가비용 지출은 금지한다” 라는 윤리규정을 성실히 지켜질 것이 요구된다.

2) 18대와19대간에 정식으로 인수 인계 운영세칙에 의거한 인수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제19대 정영로 인수 위원장이 제18대 김길남 회장에게 인계 인수 협조 요청을 위해 8회 이상 서신과 전화를 보냈으며, 이오영 회장의 3회 이상 협조 요청한 서한 카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제 18대의 비 협조로 정영로 인수 위원장이 중도 포기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후속 조치로 켄터키 확대 간부 합동회의 시에 이사회에 이사장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완전 인수 받도록 한 바 있으나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인수인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운영세칙 제5조에 명시된 10개항의 목록이 무시된 채 산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가. 취임 직후(2001년 7월) : ① 총연기 1개 ② 백지 명암 1 Box.

③ 총연 관인 2개, 간인 1개, 철인 1개. (직인은 별첨과 같음)

나. 8개월이 넘은 시점에서(2002년3월12일) : 제 18대까지의 7명의 회장님(이도영, 최광수, 이민취, 자넷리, 김승리, 최병근, 김길남)의 회관 건립 위원 및 4명의 회장님(이민취, 김길남, 최광수, 최병근)의 은행 signer 명단 과 2001년9월7일 현재 메릴랜드에 있는 Chevy Chase Bank 은행에 2구좌(#013-459719-2 : \$85,538.94 & #013-437194-1 : \$2,794.50)로 되어있는 Balance Sheet Copy 각 1매를 포함하여 동 은행에 제19대 총연 회장을 소개하고 회관 건립 기금 관리를 위해 현직 회장 이름을 기재요구를 위한 은행에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여 보내 왔을 뿐, 정식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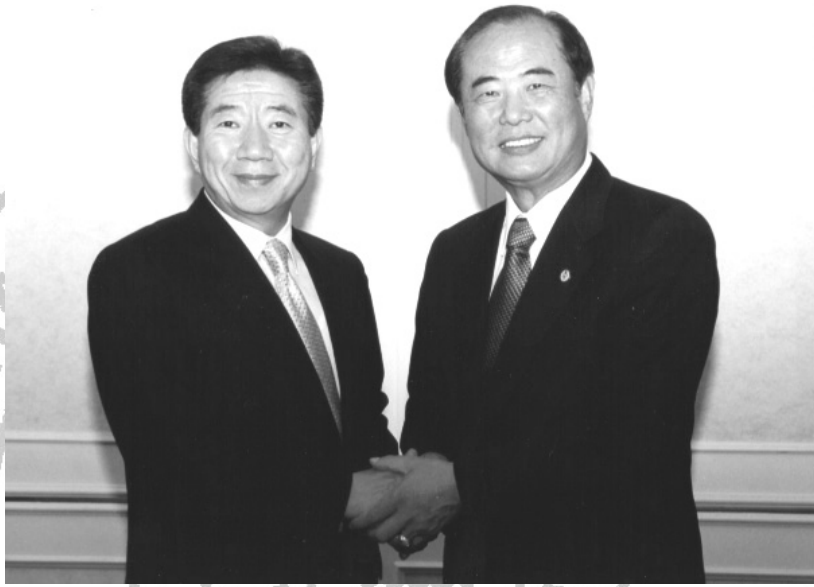
2002년 8월 24일

감 사 강 봉 희 _____ (사인)
 나 광 열 _____ (사인)



전반기 행정 감사 광경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과의 모습



태풍 루사 성금을 전달하는 이우홍 하와이 회장

<제19대 미주 총연 이오영 총회장 취임 그 이후....>

-이오영 시대 도래하다.-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리더십으로 제19대 총연의 장 열어-

미주 총연이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220만 미주 한인동포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힘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펜주 필라델피아 아담스 마크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이오영 총회장 취임식에서 미주한인동포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총연의 위상 강화를 강조함은 물론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 주류사회의 주체로 폭넓은 정치 참여와 타 소수 민족 및 해외동포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강한 포부를 밝히면서 "미주 총연이 미주 220만 한인 대표기구로서 위치를 굳히기 위해선 총연 스스로의 피나는 자구적인 노력과 한국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이 회장은, 취임 후 약 2달 동안 선거로 인해 보이지 않는 총연 회원들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한인 회장 대회 참석, 인선 위원회를 통한 제19대 임원·이사·위원 위촉, 11인 회칙 축조 심의 위원구성 축조 심의를 거쳐 회칙 개정, 컴퓨터 회사가 소유권(koreanusa.org)을 갖고 있는 총연 웹사이트로 인해 총연의 컴퓨터를 통한 업무의 제약과 과도한 고정비용에서 탈피하고 원활한 운영과 미래 가치

척을 위해 총연 소유의 주소 변경으로 새로운 웹사이트구축(www.koreanfedusa.org)등 활기찬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는 그간 총연에 무관심했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회원들도 서서히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숨어있는 인재 발굴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한다.

취임

지난 6월 30일 제19차 정기총회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300명 이상의 총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아담스 마크 호텔에서 열렸다. 이오영 회장은 취임식에서 220만 미주 동포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총연의 위상을 높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 중심으로 임원, 이사, 분과위원 등을 구성하여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사무처의 행정체제 확립, 회원과 사무처의 원활한 통신, 분기별 지역 확대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한인회와의 현안 문제점 개선 등 9대 운영방안과 목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행사 참석자들은 물론 제19대 회장이 되기까지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2001년 8월 16일

제19대 제1차 확대간부회의 및 켄터키 지역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아 래

- 1.일시: 2001년 9월 28일 오후-30일 오전.
- 2.장소: 켄터키 Hyatt Regency Louisville Hotel.
320 W. Jefferson Louisville, KY 40202. (Tel.502-587-3434)
*공항: Louiville International Airport.
-호텔까지 10분 이내 소요. 개별적으로 Taxi 이용바람.(요금은 10불 이내).
- 3.일정: 별지 일정 참조(안)
- 4.협조사항 : 협조사항 란 참조.

3. 일 정

가. 일정표

나. 세부일정

1) 공식행사

- ① 개회사
- ② 국민의례
- ③ 환영사-
David L. Armstrong(Louisville 시장)
- 켄터키 지역 현 회장
- ④ 회장인사
- ⑤ 이사장 인사
- ⑥ 축사-대사
- ⑦ 축사-명예회장
- ⑧ 축사-직전회장
- ⑨ 축사-초대회장
- ⑩ 임원, 이사, 위원 등 인사소개-사무총장



켄터키 회의에 참석한 19대 회장단

2) 세미나

- 미국 과 한국에서 총연의 역할- 미 연방하원의원 Anne M. Northup (TBC)
- 한반도 통일과 총연의 역할 - 양성철 대사(TBC)

- 미국주류 사회에서 한인 차세대의 위치와 역할-Dr.신호범 주상원의원
- 임용근 전 주 상원의원(전 총회장)-연제 미정
- 기타

다. 회의

- 1) 총회 결과보고(사무총장)
- 2) 임원소개(회장)
- 3) 개정된 회칙 설명(축조심의 위원장)
- 4) 토의사항
 - 각 분과별 사업 계획보고(각 분과위원장)
 - 감사 선정
 - 인수 사항보고(인수위원장)
 - 사업 및 예산 안(사무총장)
 - 일반 회비, 이사회비, 분담금 책정
 - 지역 한인회 소개(지역회장)
 - 기타

4. 협조사항

- 각 분과 위원장께서는 해당 분과의 사업 계획을 준비하여 약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 특별위원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또는 평소 지면이 있는 중요 정치인 또는 행정가의 인적 사항과 특성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쯤 DC에서 정치 포럼을 정치 특별위원회 주최로 가질 예정이오니, 이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 회의 참석 시 각자 명함판 사진 1매씩 부탁드립니다.
- 편찬, 출판 위원회에서 "총연 신문"제작을 준비중에 있사오니 각 한인회별 소식과 광고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이승열: 303-520-7867(O), 303-322-5192(H), 303-780-0087(F)

국승규: 719-574-0909(O), 719-576-3722(H), 719-574-0888(F)

- 가능한 모든 임원, 이사, 위원들께서는 E-Mail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주소가 바뀌거나 새로 만드신 분 과 E-Mail 주소 설치에 필요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즉시 본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준비 위원장 사무총장 박 현 우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참사에 대한 미주 총연 성명서 발표

총연 01-19-25

9월 11일 뉴욕의 세계 무역관(World Trade Center)과 워싱턴 펜타곤에 납치 항공기로 반인륜적이고, 반 인 도적인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 과 함께 미주에 이주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220만 한인동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총연)은 인종과 이념을 초월하여 이민 테러 공격에 의해 참사를 당한 피해 당 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총연은 해당 지역 한인회를 비롯한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참사 현장의 한인 피해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참사 피해자들에게 헌혈을 비롯하여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각 한인회에서는 헌혈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인명피해가 확인 되는대로 모금운동을 전 개하여 총연으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연은 이번 사건의 충격의 여파가 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러한 반인륜적이며 무 차별적인 테러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 관계부처의 노력과 응징 책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2001년 9월 12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테러참사 피해돕기

- 1) 헌 혈 : 1-800-GIVE LIFE
- 2) 물품 및 Money : 미주 한인회 사무처(215-635-5410/502-240-9924)

2001년 10월26일

제 19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출범에서 9월 10일 까지 중요 사업 경과보고

- 1). 취임식(6/30/01-필라 아담스막 호텔)
 - 제19대 이오영 회장 취임
 - 하다.
 - 결과를 종합(9월 15일)하여 일본정부,UN대표부, 백악관,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예정
- 2). 총연 사무실 확정
 - 가)회장 사무실 - 필라델피아(215-635-5410):봉사 시간-10.00-17.00
 - 나)워싱턴 DC사무실 - 워싱턴 연합 한인회와 공용 (703-642-3500):봉사시간-10.00-17.00
 - 다)사무총장 사무실 - 켄터키(502-240-9924):봉사 시간-09.00-18.00
 - 6). 총연 컴퓨터 Home Page 재구축
 - 기존 Website가 Netspress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Rent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총연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조건이 적절치 않게 되어 있어 총연 소유의 "WWW.Koreanfedusa.org"라는 새로운 주소로 10월초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 중.
- 3). 세계한인회장단 워크샵(동포재단주관: 서울 -7/9-12/01)
 - 가) 이오영회장 전체회의 의장으로 피선으로 세계 회장단 워크샵에 중추적 역할
 - 나) 동포센터건립추진 및 5개항의 결의문 채택
 - 다) 관계부처장에게 동포사회 육성발전 지원정책 수립 건의
 - 7). 회칙 개정
 - 지난 제 19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게 11인 소위원회를 구성 축조 심의하여 통과되면 확정되도록 전권 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11인의 축조심의 위원들이 개별 심의를 거쳐 종합되어 정리단계에 있으며 이를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이번 첫 임원 확대회의에 보고하여 인준 형식을 거쳐 확정 지을 예정이다.
- 4). 인선작업 완료
 - 인선위원장 김기홍(전총연 이사장)이 주도하여 명예회장 이민휘(전총회장), 이사장 이준성(서북부 연합회장), 사무총장 박현우(켄터키전회장, 전 총연 사무총장)외 168명의 임원 확정
 - 8). 9월 7일 양성철 주미 대사 방문 및 기자회견
 - 가) 총연의 현안문제와 미국과 한국사이의 교량 역할자로서의 위상 정립에 대한 협의
 - 나) 와싱턴 DC 기자회견(한인회관)
- 5). 일본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및 시정 촉구 대회
 - 위원장 하기환(LA회장), 부위원장 김경환(아틀란타 회장), 실행위원 각 지역 한인회장으로 구성하여 지난 8/15/01 5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시 본 운동전개
 - ▷출범에서 현재까지 중요 경과보고
 - ▷관계북한평양에서 열린 8.15 '2001년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일부 해외 동포들이 "해외동포대표단체들을 김정일 위원장 해외교포 조직으로 이끌겠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8월 23일자 한국 일보 기사에 대한 반박내용의 "미주 총연의 입장"을 발표

9). 정기 총연 신문 발행

- 가) 총연 신문 출판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편집인 국승구 회장)에서 작업 중 - 월간지를 목표
- 나) 지속적으로 원고, 작품 및 광고 모집
- 다) 3-4,000부 예정

10). 제 19대 총연 제 1차 임원 이사 확대 회의 및 지역 세미나를 겸한 상견례 개최
 참가 자격 - 제 19대 자문위원 및 임원, 이사, 위원 등 공무 담임을 위촉받은 전원 및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

- 가) 일시-2001년 9월 28-30일
- 나) 켄터키 루이빌
- 다) 중요 안건
- ▷경과보고
- ▷임원 발표 및 중요부서 인준 및 선임
- ▷사업 및 예산안

▷회비(일반,이사,특별) 책정

▷기타

라) 세미나-

▷제목- "미국주류 사회에서 주체적 역할을 위한 총연의 사명 "

"미주한인 사회 성공의 지름길"

▷연사- 박선근(전총회장 / 백악관 직속 아태계 국가정책 자문회의 자문위원)

11). 한인지도자 대회예정

가). 정치특별위원회 구성

나). 정치위원회 주최로 2002년 3-4월경 워싱턴 DC에서 미 유명정치인 과 한국 유명 정치인 초청, 포럼 예정

12). 필라델피아 지역 기자회견 (9월 10일), 출범 후 현재까지 경과보고

** 미 실시 된 사업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되거나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연합뉴스

<연합 인터뷰>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이오영 회장

"지난 100여 년간 미주 한인 사회가 조국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 이제는 조국이 우리를 위해 도움을 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2회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 차 지난 9일 서울에 온 신임 이오영(59) 미주 한인 총 연합회(이하 미주 총연) 회장은 "본국 정부가 '한민족 시대를 열자'며 한민족 공동체 구축과 같은 형식적인 정책만을 논의할 뿐 재외동포센터 건립이나 한인 문화회관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장은 "560여만 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40%인 220여만 명이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미주 총연은 그 중심에 있다."며 "재미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곧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발판임을 정부가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Q. 실질적인 지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주 총연의 힘이 강하고 커야 한민족의 위상이 커진다. 미주 총연이 한인회관 건립, 한글학교의 지원, 한국의 날 행사 지원 등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동포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북 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재외 동포가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도록 '한

민족 기금' 등을 마련해 전략적인 지원을 할 때이다. 재외 동포를 초청 등 일회성, 소비성 행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이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해외정책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미주 총연, 민단 등 주요 동포 단체들이 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Q. 향후 미주 총연의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

-미국은 다양성의 사회다.

미주 한인 사회가 여러 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다양성의 표현이다. 흑자는 이를 두고 한인 사회의 갈등이니 내분이니 한다.

그래서 한인 사회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다. 미주 총연은 바로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정해 주는 대표기관이다.

또한 미국 주류사회와 한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키워나갈 것이며, 교량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에도 미주 한인 사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다.

Q. 한인 2, 3세들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미주총연 산하에 2,3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의 날' 행사를 각 지역별로 확대하도록 홍보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글학교의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국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다. 2003년에 열릴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는

동포 2,3세대들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최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_ghwang@yna.co.kr



여성 분과위원단과 함께



이동 명예고문이 이사회의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 11월 1일

총연 01-19-13

수신: 고문, 자문위원, 중앙상임위원, 임원, 이사, 분과 위원장 및 해당지역회원

발신: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제목: 제1차 지역 및 임원, 이사 합동회의 소집에 관한 건

그간도 안녕하십니까?

총연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보내주신 "수락서"에 담긴 회장님의 고귀한 뜻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1세로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영광보다는 좌절이 칭찬보다는 비난이 앞서는 현실과 지나야 할 길이 험준하고 멀기만 하여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나 개인의 행복과 이익 추구를 위해 바쁘기만 한 오늘의 현실 속에 회장님이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총연이 오늘이 있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값진 희생으로 역사 속에 자리잡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제1차 지역 및 임원 이사 확대 간부회의와 상견례를 갖고자 합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장단

2001년 11월 7일

” 2001 재외동포 문화제 및 해외동포문제 토론회 참석”

2001년 11월 7일 본국 방문 결과보고

이오영 회장과 이준성 이사장 일행(박현우 사무총장 포함 25명/이하 임원)은 지난 2001년 10월 23일-31일까지 동포재단 주최 "2001년 재외동포 문화제"와 "해외 교포 문제 연구소 주최 제3회 국내·외 해외 동포 문제 전문가 대 토론회"에 참석 차 본국을 방문하여, 문화제와 토론회에서 계획한 주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토론회에서는 미주 총연 회장 주최 오찬으로 토론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오영 회장은 본국 행사에 앞서, 10월 19일 제주 관광 대학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아 "미주 한인 사회의 현황과 진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또한 일본 김재숙 단장의 초청으로 일본 민단 중앙본부를 방문, "재외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방안과 대 정부 건의 시 양 단체의 협조체제 강화"를 비롯하여,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7차 하와이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와 재외 동포 권익을 위한 대 정부 창구 공동보조 및 향후 상호 협력방안"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오영회장 일행은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장기적인 국가 투자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재외 동포 정책 수립과 미주 총연을 미주 한인동포 사회의 구심 대표 단체로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미주 총연 지원 예산" 확보를 건의한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뜻을 표시했으며, 특히 권병현 동포재단 이사장은 금년 안에 납득 할만한 수준의 금액을 현재 동포재단 예산안에서 총연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총연지원금의 실현을 위해 3당 총재와 관계 국회의원을 방문, 당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후 바쁜 일정을 마치고 11월1일 미국으로 돌아 왔다.

특히 이한동 국무총리와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미주 총연을 미주 동포 대표 기구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오영회장은 권병현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부터 지난 7월 9일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미주총연 회장 사회로 결정된 "재외동포센터"건립 건의가 정부로 부터 승인되었음 과 앞으로 재외동포재단과 총연이 공동 연대의식을 갖고 동포센터 건립성공을 위한 건립모금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제의해 옴으로 이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동포재단의 세부 모금계획이 도착되는 대로 미주지역 전한인회를 포함하여 범 동포적인 차원의 모금운동참여를 홍보하도록 사무처에 당부 하였다.

2001년 12월 18일

2002년 정치포럼 및 세미나에 관한 건

총연 01-19-77

수 신 : 정치 특별위원

참 조 : 회장단/중앙상임위원/이사장단 및 기타 임원

발 신 :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오영회장

제 목 : 정치포럼 or 세미나에 관한 건

그동안 안녕 하십니까 ?

9.11사태 모금에 동참하여 주신 각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일전에 보내드린 업무보고 및 회비납부의뢰에 관한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상의 드릴 안건은, 지난번 켄터키 루이빌에서 제1차 임원 확대회의에서 사업계획으로 결정한 2002년 5월에 계획하고 있는 "미정치 포럼 또는 세미나" 형식에 관하여, 전 총연 회장이신 박선근(현 부시대통령 자문위원) 총연 고문님을 '행사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승락해 주셔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6일 아틀란타에서 본인을 비롯하여 박선근 준비위원장, 이동 명예고문, 이웅길 수석 부회장, 김영오 중앙상임위원, 김백규 신임 아틀란타 한인 회장(중앙상임 위원), 신현대 부회장, 박현우 사무총장, 김일호 이사, 유금춘 이사, 차대만 기조 차장 등 일부 임원진과 아틀란타에서 장시간 토의한 결과 동행사의 주제를 "미 주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한 미주 한인동포들의 역할"로 단일화하자는 의견과 "한반도의 통일과 미국의 역할, 그리고 한인 동포들의 역할 + 기타 중요사항"을 포함시키자는 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정치위원을 포함 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사를 위해 예산은 \$55,000-\$65,000 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위원회에서 차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사오니 바쁘시더라도 12월27일 까지 아래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견을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 23일(22 접수, 23일 회의,24일자유시간) 달라스에서 제 2차 임원 확대 회의 및 지역 세미나를 개최 시에 별도 "정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특별위원회는 물론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시항목

의견제시항목

1. 행사 형태-정치포럼 또는 세미나 주제가 결정되면 행사 형태를 결정하기로 하겠음.
2. 주제 -"미 주류 사회 주역이 되기 위한 미주 한인 동포들의 역할" 단일 안 또는 귀하의 고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Keynote Speaker선정 - 귀하가 추천 가능한 미 정치인 또는 중요 각료 중에서.
4. 일시 및 장소 - 5월 중, 호텔 사정에 따라 최종 조정 - 현재 견적을 받고 있음.
5. 기 타 - 귀하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회장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배

2002년 1월 3일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전국연합 조직 결성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전국연합 조직 결성"
 명예회장에 총연 이오영회장, 총회장에 김창원 하와이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세부운영 계획은 총연과 긴밀한 협조하에 하도록

지난 11월 27-29일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 서영석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특별 위원장(현 서남부 연합회장), 노명수 오렌지카운티 회장 등은 LA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레디슨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전국 회의에 참석하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오렌지카운티, 하와이, 시카고, 아틀란타 등지에서 온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전국 연합체를 구성했다.

본 전국회의초 개회식에서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또 다른 100년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여 우리를 평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선배들이었다는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도록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특정 지역을 초월한 범 동포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단합된 동포사회의 모습과 문화민족의 상을 미 주류사회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 지역 한인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아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 한인회장과 협조하여 조직을 확산시키는 전국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회식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체 연합 회장에 하와이 추진 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수고한 김창원 회장을 그리고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고, 각 지역 추진 위원장을 Co-Chair로 위촉하여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한인 사회까지 전국 조직으로 확산하여, 다가오는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범 동포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세부운영은 총연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행하기로 했다.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서영석 미주 총연 100주년 이민 기념사업 특별 위원장을 미주 총연을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한편 총연 사무처에서는 각 지역 한인회별로 동 기념 사업을 독립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서영석 특별 위원장의 포괄적인 계획을 12월 4일 E-Mail 과 Fax로 각 지역 한인회에 발송했다.

각 지역 한인회에 보낸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체 결성촉구

총연 01-19-56

수 신: 각 지역 한인회장 및 연합회장님 귀하

발 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

제 목: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결성에 관하여

그간도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27-29일 LA에서 미주 각 지역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들이 모여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여, 오래 전부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김창원 하와이 행사 추진 위원장을 전체 회장에,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을 명예회장에, 각 지역 추진위원장을 Co-Chair로, 서영석 총연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 위원장을 총연의 대표 장구로 활동하기로 하고 전국연합 추진위원 운영을 위한 정관을 사무총장으로 위촉된 민병용 전 LA 기념사업 추진 사무총장께서 총연의 의사를 반영(서영석 위원장)초안 하기로 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며, 다가오는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가 범 동포적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내용은 서영석 위원장께서 작성한 협조 전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를 당부 합니다.

연락처: 서영석-T(323) 422-9988/ Pager(323)-260-1993/F(323)-468-4699

총연 사무처-T(215)-635-5410/ E-mail : headquarter@koreanfedusa.org

TO : 각 지역 한인회 회장님 귀하

From : 서영석 미주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회장님과 가족 및 사업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회장님과 임원 및 이사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민 100주년이 2003년 1월 13일이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 행정부, 의회와 한국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회 총연에서도 이 뜻깊은 기념일을 보다 뜻 있고 알찬 생일로 기념하기 위하여 각 지역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기념식, 행사, 만찬 및 이의 홍보 등을 위해 적극 참여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Hawaii를 중심으로 미국 7개 지역에서 이미 기념 사업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마는 대부분 도시에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알려드리며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회와는 적극 협력하고 참여키로 합의하였으나 미주 총연의 역할이 분명해질 때까지 각 지역 한인회에서 협조해주실 일들을 알려드리고 참여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각 한인회 연합회와 지역 한인회에서는"

첫째, 2002년 2월 중순까지 각 한인회에 기념 사업회 분과를 범 교포적으로 구성하시고
둘째, 기념행사 및 만찬, 기념일 선포, 홍보책자 발행 및 기타 지역에 맞는 행사를 계획하시고
셋째, 2002년 2월 하순에 Dallas에서 있을 미주 총연 회의 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연말과 연초의 분주하신 행사 참여로 존음의 여유가 없으시겠으나 이 사업의 촉박함과 중요성이 지대함으로 꼭 준비에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회 서영석 올림. (싸인)

2002년 1월 8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아픔을 함께 미주 총연 9.11 테러 참사에 대한 성금모금 집계 현황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오영) 지난 9·11 뉴욕, 워싱턴 중심부에 아프간 탈레반 국제 자살 테러 분자에 의해 감행된 공격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반 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부시 미 대통령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 인종을 초월하여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한 한인동포들의 동참을 위해 미주 총연에 총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 한인 회장을 지역 실행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모금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미 관계 기관에 접수한 후, 그 실적을 총연 사무처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의뢰한 바에 따라 총연에 집계된,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모금하여 미관계기관에 접수한 성금은 12월05일 현재\$4,059,674.62 이라고 발표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집계를 할 것이라 밝히고 현재까지 집계된 현황을 한·미 언론에 Release함과 동시에 부시대통령과 미 중요 정치인 에게 보내기로 했다. 또한 미주 총연 사무처는 성금모금에 동참해준 지역 한인회, 한인 단체및 기관에 감사를 드리고 모금한 성금을 직접 미 관계기관에 접수 시킨후 아직도 총연 사무처에 그 현황을 통보하지 못한 단체나 개인들이 계시면 미주 총연(전화 215-635-5410/ 팩스 215-782-1266/ headquarter@koreanfedusa.org) 으로 통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성철 대사를 방문한 간부들

<지역별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LA 한인회: \$1,477,696.40/ 휴스턴 한인회: \$41,543.00/ 필라델피아: \$94,161.00 /워싱턴DC 한인회: \$218,704.00 / 시카고 한인회: \$210,000.00 /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6,509.00/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163,732.71/ 샌디에고 한인회: \$11,472.60/ 보스턴 뉴잉글랜드 한인회: \$27,953.00/ 차타누가 한인회: \$3,850.00/ 낙스빌 한인회: \$3,450/ 멤피스 한인회: \$5,200/ 네시빌 한인회: \$1,200.00/ 아틀란타 한인회: \$24,535.23/ 달라스 한인회: \$24,693.10 /디트로이트 한인회: \$9,800.00/ 대 뉴저지 한인회: \$2,584.92/ 뉴욕 한인회: \$498,045.66/ 뉴욕 라디오 서울: \$1,214,378.00 접수 순

- 1차 소계 : \$4,059,674.62

1차 추가접수 현황(12/07)

마이애미 한인회: \$6,500.00/ 킬린 한인회 : \$2,712.00/ 앵커리지 한인회: \$10,240.00/ 시애틀 한인회 : \$56,258.79/ 타코마 한인회: \$81,000.00/ 스포켄 한인회 :\$3,760.00/ 밴쿠버 한인회 : \$700.00/ 오레곤 한인회 :\$23,000.00/ 아이다호 한인회 : \$500.00/ 유진 한인회 : \$1,100.00/ 남부 오레곤 한인회 :\$500.00

필라델피아 \$5,000.00

- 2차 소계 : \$4,250,945.41

2차 추가접수 현황(1/08/02)

하와이 한인회: \$1,985.00/ 임페리얼벨리 카운티 한인회: \$3,200.00/ 콜로라도스프링스 한인회: \$10,500.00/ 북알라바마 한인회: \$5,996.00/ 캔자스시티 한인회: \$7,200.00/ 오마하 네브라스카 한인회: \$1,174.00/Friends of korean, culture(TN): \$500.00

-총계 : \$4,280,600.00 (1/08/02 현재 집계)

2002년 1월 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 제공

2002년 1월 10일

2002년 현재 동포 사회의 당면 과제

재미 동포들은 본국이 IMF라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딸라 보내기, 본국에 저금 통장 갖기, 본국에 투자하기, 국산품 애호하기"등으로 위기 탈출에 적극 동참했으며, 이번 9.11자살공격 테러 참사 때 인종을 초월하여 피해자를 위한 "헌혈, 성금모금"에 동참하여 미국 관계기관에 접수시킨 모금 총액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 집계한 결과 12월 7일 현재 4백 25만 불이 초과되었다. 이것은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미국이나 본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저력이 있고, 의식있는 문화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미주 총연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위시하여 미 중요 정치인 모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다 관심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당면 과제는,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년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 보면, 이민생활 정착기에서, 이제는 미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220만 미주 한인동포들의 힘을 한데로 결집시키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그것은 각 지역 한인 사회의 한인 단체는 가급적 친목행사나 일반 봉사활동은 봉사 단체에 맡기고, 각 단체간에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동포 사회 에너지 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주류 사회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인회에 힘을 실어 주고, 지역 한인회는 누가 한인 회장이 되던, 지속적으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로 사심 없이 힘을 모아 주는 지혜와 협조로 힘있는 대표단체로 육성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할 때다.

2002년 1월 13일

제7차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003년 1월 12일 오후 5시, 하와이 소재 리조트 호텔에서 미주 총연 측(회장 이오영), 민단(단장 김재숙), 독일, 인도 등지의 운영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회장 김재숙 민단단장의 주체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5월 16-18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는 한 한민족 대표자 회의를 같은 시일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측 제의로,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을 더욱 빛내자는 의미로 본 대회를 하와이에서 개최기로 한 것은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12-14일까지 주요 행사를 성대히 마침으로 5월에 같은 장소에서 해외 한민족 대표자 대회를 중복해서 개최하는 것이 의도했던 만큼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9·11 사태 이후 미국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인원 동원에 문제가 많다는 각 국 대표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신 정부에 재외 동포들의 결집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시기적으로 5월 서울 개최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결집력있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 세계 한인회장 대회와 함께 하기로 이오영 총연회장, 김재숙 민단단장, 권병현 재단 이사장과 뜻을 모았다. 이날 미국 측 참가자는 이오영, 이준성, 김호원, 석균쇠, 손재덕, 박현우, 이승렬, 김영만, 정세권, 서영석, 정영로, 임성빈, 김마리 덕슨 등이었다.



운영회의를 마치고

2002년 1월 28일

2002년 재외동포특례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협조에 관한 건

총연 02-19-93

공 지 사 항 (긴급)

Re: 재외동포 특례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협조에 관한 건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 임오년을 맞이하여, 동포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해 11월 29일 본국에서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개정 존속되어야한다는 재외 동포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총연 내 법률 분과 위원회(위원장 변호사 김경곤 회장)에서 헌법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재외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재외동포 기본법을 위시하여, 위헌 판결로 존폐의 기로에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각계 각종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문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건의문 제출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총연 회원을 비롯하여 한인사회 각계 각종인사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있사오니 동포 여러분의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포함할 자료는 시간 관계상 2월 15일까지 종합하여, 2월 22-24일 달라스(TX)에서 개최되는 임원, 이사확대간부회의 및 지역 세미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국정부 및 국회 각 관계 부처에 접수시키 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와 의견을 보내실 주소는

E-mail: headquarter@koreanfedusa.org / Fax: 215-782-1266

2002년 1월 2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배

2002년 1월 30일

제2차 임원·이사 확대간부회의 및 달라스 지역 세미나 개최

공지사항

Re: 총연, 임원·이사 확대간부회의 및 지역 세미나 개최

아래와 같이 제2차 임원, 이사 확대 회의 및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시 : 2002년 2월 22-24일
2. 장소 : Omni Dallas Hotel Park West (공항: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1590 LBJ Freeway , Dallas, TX 75234
T) 972-869-4300, F) 214-442-2133

3. 토의안건 :

- 1) 정치포럼(Korean-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 2) 동포기본법/재외동포특례법개정 건의안
- 3)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 4) 효과적인 Network 구축
- 5) 재외동포센터 건립 협조 건
- 6) 2002년 월드컵 후원
- 7) 한반도 통일과 총연의 역할
- 8) 기타

**토의는 분과별 토의 후 이사회에서 의결.

참석을 원하시는 회원이나 임원, 이사께서는 사무처에 참석 여부(이미 참석 통보 회신을 보내신 분은 다시 보내실 필요 없음) 와 달라스 도착, 출발 항공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30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 무 처

2002년 2월 10일

재외동포 신정부에 재미, 재일 동포 정책 반영을 위해

이오영 회장에 의하면, 오는 2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정부에 재외동포 정책 건의를 위한 동포 정책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주 총연과 일본 민단 공동 주최와 동포문제 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개최될 이번 재외 동포정책 포럼은, 새로운 정부에 반영시킬 재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이·취임식 일자를 맞추어 서울을 방문하는 각국 대표들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을 정한 것으로, 미주 총연 임원 및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 존속 촉구,

이오영 총회장은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 존속을 위해 2003년 4월까지 재외동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와 국내 동포간의 일체감과 애국심 고취와 21세기를 주도할 열린 국가 건설이란 목적 하에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재외동포들의 환영을 받고 있던 동 법률은 1948년 이후 조국을 떠난 재외동포에게 모국 내에서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국내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진일보적인 법규로써 2년 여 간 시행되어 오다가 재외동포를 1948년 이후라고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이라고 재중 동포들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률 효력을 중지하는 이른 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한시적 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건에 대해 미주 총연은 임원, 이사, 중앙 합동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에 채택, 수 차례에 걸쳐 200만 재미 동포 이름으로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상정 결의문에 채택, 재외동포 600만 이름으로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에게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획득한 바 있었다.

그 후, 모국 정부와 국회가 선거 분위기에 밀려 오늘까지 동 법의 개정 심의가 밀려온 것으로, 이오영 회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 사안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100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재외동포법은 미주 동포에게는 어느 재외동포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임을 강조하고, 각 지역 한인회는 물론 미주 동포 한인단체 및 교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서명 양식은 미주 총연에서 각 광역 연합회나 지역 한인회를 통하여 배부하여 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오영 회장은, 이번 하와이에서 개최된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 각국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2차 달라스 확대 간부회의를 마치고

2002년 2월 27일

NBC -TV 제이 레노의 한국인 비하 발언에 대한 항의서한

<공지사항>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NBC-TV 투나잇 쇼 진행자인 코미디언 제이 레노가 "고속도로에서도 한국인 차를 '꺼져' 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박탈당해 집에 가서 개를 걷어 찬 다음 아예 잡아먹었을지도 모르죠."라고 비아냥거리고, 한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한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안에 대해 NBC-TV 에 다음과 같은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김경곤 법적지위 위원장(변호사)으로 하여금 법적 대응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항의서

2002년 2월 20일, Open Short-track Skating 경기에서 한국의 선수가 1위로 들어 와 금메달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심판의 실격 판정으로 당시 경기를 시청하던 한인들은 물론 현지에서 취재하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을 포함하여 지구촌의 많은 시청자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함께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저명한 방송국의 하나인 NBC-TV 투나잇 쇼의 진행자 코미디언 제이 레노의 발언은 마치 하이웨이 선상에서 항상 한국인 차들이 위험하게 끼어 들고 있는 듯 무법자의 인상을 유도하도록 비하시키고, 미국인이 혐오하는 개고기 문화를 악용하여 한인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려는 비신사적인 목적의 토크쇼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Feb 27, 2002

Dear NBC TV and Mr. Jay Reno:

I am the Counsel for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United States, representing some 2.2 million Korean-Americans residing in the U.S.

The purpose of this e-mail is to express our displeasure over the improper comments made by Mr. Reno regarding Mr. Dong Sung Kim and about Korean-Americans in general which were inflammatory and highly prejudicial.

Note that while Mr. Kim may arguably be called a public figure, not all Korean-Americans can be said to be public figures and we simply do not care

for such careless labeling that grossly misdepicts this group as a bunch of dog-eating highway bandits.

Kindly contact this office so that we can discuss ways of putting this unfortunate incident to rest. Your prompt response will be greatly appreciated.

James K. Kim



2002년 3월 1일

유승준 재미동포 입국 거부 이유 모국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본국 법무부로 이민권 소유 미주 동포들의 조국 대한민국 입국 거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여론을 알리고, 유승준(연예인)의 입국 거부 이유를 요청했기에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총연 02-19-105(1)

수 신: 송정호 법무부 장관님

참 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 목: 유승준 재미동포 입국 거부 이유 확인 요청에 관한 건

지난 2월 2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연예인) 재미 동포의 본국 입국 거부에 대해, 재미 동포 각계 각층에서는 항의 전화와 e-mail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로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본국 입국 목적과 반하여 국내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입국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민주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졸렬 행위라고 지탄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자칫 출입국 관리 당국이 감정에 따라 재미 동포의 본국 출입을 제한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다망 하겠사오나, 본 건에 대해 재미 동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부이유를 빠른 시일 안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동 법적·인권 문제 특별 위원장 김 경 곤 배.

* 총연 사무처:

T) 215-635-5410, F) 215-782-1266

E-mail) headquarter@koreanfedusa.org

주소) 1135 W. Cheltenham Ave. #200

Melrose Park, PA 19027

2002년 3월 6일

각 지역 한인회 이민100주년 기념사업회 결성 건

총연 02-19-112

각 지역 한인회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제2차 달라스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에 관해 별지와 같이 각 지역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3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큰 관심 속에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이민 100주년 특별 위원장 서 영 석 배.

<별지>

안녕 하십니까?

지역사회 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 임원 및 이사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에서는 지난 2월 23일 Dallas에서 회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사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모든 지역 한인회내에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특별위원 회를 범 교포적으로 2002년 3월 말까지 구성하여 주시고 총연에 연락바라오며 (단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된 지역에서는 한인회가 협력하여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 전 한인회 에서는 2003년 1월 일정기일을 택해 기념식, 만찬, 선포식, Poster & Street Banner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시되, 기타사업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 2003년 1월1일 Rose Parade 꽃차 출품에 동참하고, 장미꽃 사주기 Campaign을 적극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념식, 행사 Poster & Banner 등의 사업을 위해 정부와 기업체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기념사업 위원회 결성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너무 큰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서영석

회장 : 이오영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2002년 3월 6일

긴급 협조전

한인회 100년사 및 총연25년사 편찬에 따른 자료 협조 및 제7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와
새 정부에 반영시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총연 03-19-279

수 신 : 고문, 자문위원, 중앙상임위원, 회장단, 이사장단

발 신 :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

제 목 : 긴급 협조전

1. 작년 한 해에도 도와주심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미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조와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03년 1월 미주 총연 신문 발간을 위해 국승구 편집 위원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에 게재할 홍보 자료(회장이 새로 선출된 지역 및 중요 행사 등) 및 광고(근하신년, 한인회 및 개인 사업 등) 협조바랍니다.
3. '한인회 100년 사 및 총연 25년 사'출판을 위한 각 지역 한인회별 자료 협조바랍니다. (각 지역 창립부터 현재까지 역대 회장별 중요 업적, 특이사항 및 행사 사진 등)
자료를 미제출한 한인회는 이번에 발간되는 역사 기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마감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편집을 맡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아일보사에서 임보현 사장(편찬 위원장)이나 편집 기자가 전화로 마무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5/16/03 - 5/18/03 , 하와이)와 새 정부에게 건의 반영시킬 재외 동포 정책 포럼 (2월 중 / 서울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업이나 의제가 있으시면 간단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내용은 예하 지역 한인회에 전부 보내주시고, 협조를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 장 이 오 영

2003년 1월 13일

세계 한민족 공동체 재단 하와이 지부 창립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의 역사적인 개막식과 저녁 만찬 사이를 이용, 오후 2시 30분, 호놀룰루 리조트 호텔에서 200여명의 국내, 외 동포 지도자 급 인사가 모인 가운데, '해외 한민족 공동체 재단'(총재 김덕룡 의원)하와이 지부가 창립되었다.

김덕룡 총재의 환영인사와 여창동 하와이 지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과 박명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정일 의원, 일본 상공인 협회 한승우 회장 등의 축사로 이어졌다.

'세계 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이면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덕룡 총재는 인사말에서 이번 하와이 지부가 미주에서 13번째 창립되는 지부라고 밝히고, '본 재단은 건국 이념인 흥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국의 7천만 동포와 6백만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조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한민족의 에너지를 모아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와 한민족의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 시대로 개척해나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동참을 호소하였다.

본 공동체 재단은 2002년 3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창립되어 정관을 통과시키고, 김덕룡 의원을 만장일치로 총재로 추대하면서,

- ① 국내외 동포 간 정보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 ② 세계 속에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창달.
- ③ 거주국에서 한민족 위상제고 사업.
- ④ 한민족 차세대 지도자 발굴 및 양성.
- ⑤ 남북 통일 및 평화 공존 기여.
- ⑥ 각종 총판과 홍보,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⑦ 재외 동포를 위한 모국 교육 및 장학 사업 등을 중요 사업으로 책정한 후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로써, 2002년 10월 8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룸에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뜻있는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재단이기도 하다.

이오영 회장은 축사에서, '100년 전 이민 선조들이 처음으로 이민을 시작한 이 곳 하와이 호놀룰루라는 역사의 현장을 13번째 지부로 창립한 것을 축하드린다고 전제하고,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가 기대하는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조직의 체계화와 자생 능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하고, 본 재단의 창립 1년이 되지 않아 벌써 13개의 지부가 창설됨은 본 재단의 목적과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어 조직이 탄탄하게 체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빠른 기일 내에 전 세계에 지부가 확산되어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초가 확고히 다져질 때, '21세기를 주도할만한 민족의 결집된 역량의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선언문

The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roclamation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immigrants have come to America to discover the promise of our Nation. On January 13, 1903,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rrived in Honolulu, Hawaii, on the SS Gaelic. Today, Korean Americans liv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one of our largest Asian-American populations. As we commemorat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e recognize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to our Nation's rich cultural diversity, economic strength, and proud heritage.

For the past century, Korean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have helped build America's prosperity, strengthened America's communities, and defended America's freedoms. Through their service in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Conflict, the Vietnam War, and other wars, Korean Americans have served our Nation with honor and courage, upholding the values that make our country stro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share a love of freedom and a dedication to peace.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Western country to sign a treaty of commerce and amity with Korea in 1882, promising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our nations. Since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as built a strong friendship with Korea -- a friendship based on our common commitment to human dignity, prosperity, and democracy. In the coming months, more than 1 million Korean Americans throughout our Nation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time, we acknowledge and commend Korean Americans for their distinguished achievements in all sectors of life and for their important role in building, defending, and sustain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W, THEREFORE, I, GEORGE W. BU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do hereby proclaim January 13, 2003, as the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 call upon all Americans to observe the anniversar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honoring Korean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for their countless contributions to America.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teenth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hree,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twenty-seventh.

GEORGE W. BUSH

2003년 1월 13일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100만인 서명운동 건의문

총연 03-19-287

수 신 :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양당 대표

참 조 : 법무부, 외교통상부, 주미 대사관

제 목 : 재외동포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정 후 존속에 관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지적 정보가치를 활용하고, 민족의 일체감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열린 국가 속에서 21세기를 주도할 민족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민족총화라는 큰 틀 안에 20여 년 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미주동포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것으로,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6124로 국회를 통과, 지난 2년에 걸쳐 시행 도중, 중국 동포들이 '재외동포의 개념을 1948년 이후 이민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2001년 11월 29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금년 말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불합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의 개정을 미주 총연이 주도하여 600만 재외 동포의 이름으로, 200만 미주 동포 이름으로 모국 국회와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02년 7월 서울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결의문에 채택되어 당시 양당 후보들께 건의되어 수렴하겠다고 약속 받은 사항으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후보께서는 이 문제 외에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정부 모 부처에서는 의도적으로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본 재외동포 법을 폐지시키고, 개별 관계법률에 의해 재외국민과 시민권소유자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미주 동포가 원하는바가 아니며,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귀찮다고 피해가려는 안일한 발상이자 전근대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미주 200만 동포 사회의 의견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 내용을 새로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오니, 재외동포법 헌법 불합치 요소를 서둘러 개정하여 존속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내용」

- 1) 정부와 국회는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요소를 효력 정지 유예 기간인 금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서둘러 개정하여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재외국민에 참정권의 하나인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 기구에 재외동포 대표를 참여시켜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하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29일

재외동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관한 협조전

총연 02-19-288

수 신 : 각 지역 한인회장

발 신 :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제 목 :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100만 동포 서명 운동 전개에 관한 건

미주 총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혜택 대상자가 1948년 이후 이민 간 한인으로 제한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헌법 불합치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폐기될 실정에 있어, 미주 동포 200만의 의견을 결집, 노무현 새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법 개정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외 동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참고사항

- 1) 재외 동포법 개정에 관해 미주 총연에서 '1948년 이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그 이전에 이민 나간 동포들까지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지난 4차례에 걸쳐 임원, 이사, 중앙상임위원 합동 연석 회의에서 의결하고, 결의문을 모국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총연 회장이 서울에서 개최된 국회 한미 포럼에 참석, 같은 내용을 주장해 온 사항입니다.
- 2) 특히 지난 2002년 7월 12일, 서울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의결, 결의문 내용에 동 조항이 포함시켜 미주 총연, 재일본 민단, 아주 지역 대표들이 당시 양당 대통령 후보에 건의한 사항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3) 차제에 헌법의 보장된 기본권이 하나인 재외 국민에 해당되는 주재원, 유학생, 공관원, 영주권 소유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권 인정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음.
- 4) 본 서명 운동에 각 국 한인들도 동참하기로, 1월 12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2. 미주 지역 특별 대책 위원회

미주 총연 창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미국 측 총 위원장 -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겸.

* 지역별 대책 위원장 (지역 한인회장 겸)

- 1) 뉴욕 : 김석주 뉴욕 한인회장
- 2) LA : 하기환 LA 한인회장
- 3) 시카고 : 석균쇠 시카고 한인회장
- 4) 필라델피아 : 정미호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 5) 샌프란시스코 : 유근배 한인회장
- 6) 달라스 : 김용규 달라스 한인회장
- 7) 아틀란타 : 김백규 아틀란타 한인회장
- 8) 오레곤 : 유형진 오레곤 한인회장
- 9) 하와이 : 이우홍 하와이 한인회장
- 10) 시애틀 : 홍승주 시애틀 한인회장
- 11) 샌디에고 : 임영상 샌디에고 한인회장
- 12) 오렌지카운티 : 이양구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 13) 서북미 지역 : 김병직 서북미 연합회장
- 14) 서남부 지역 : 서영석 서남부 한인회장
- 15) 중서부 지역 : 오기택 중서부 연합회장
- 16) 중남부 지역 : 김영만 중남부 연합회장
- 17) 동남부 지역 : 이석희 동남부 연합회장
- 18) 플로리다 : 박정환 플로리다 연합회장
- 19) 워싱턴 DC 지역 : 김영근 워싱턴 한인회 연합회장
- 20) 기타

3. 협조사항

- 1) 본 특별 대책 위원회 지역 책임 회장님은 관계 지역 한인회장이나 유관 단체 및 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 미주 동포 100만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요령은 '별지 건의서에 첨부된 양식'을 Copy해서 18세 이상 동포들에게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기간은 금년 4월까지 지역별로 서명을 마치고, 총연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이를 종합 5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민족 대표자 회의에 제의하여 결의문에 채택케 하고, 신 정부와 국회를 방문, 접수할 예정입니다.
- 4) 만약 5월 16일이 너무 늦으면 4월까지 종합되는 것을 우선 우편으로 발송하고, 후속 방문 조치하겠습니다.
- 5) 별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2003년 3월 6일

제5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 연석회의 소집 및 시애틀 지역 세미나 개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제5차 임원·이사·중앙 합동 연석회의 소집」

아래와 같이 제5차 임원·이사·중앙 합동(상임 이사회 기능 수행) 연석회의 및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공사다망하신 중이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03년 3월 28일-30일

(가) 28일 오후 4시 : 호텔 등록

(나) 29일 : 회의 및 세미나

(다) 30일 : 관광 및 골프

2. 장 소 : 시애틀 (호텔은 추후 발표)

3. 토의 안건 :

가. 업무 및 경과보고

나. 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다. 제7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에 관한 건

라. '한인회 100년 및 총연 25년 사 편찬' 및 '재외동포법 개정, 존속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경과보고

마. 한미 군사동맹 5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건

바. 워싱턴 구 공관 구입에 관한 건 (워싱턴 DC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공조 의뢰)

사. 기타

4. 세미나 : 연사 및 주제 추후 발표

5. 주관 한인회 :

*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회장 김병직) : Tel. 503-646-4688/ Fax. 503-643-4394

* 시애틀 한인회(회장 홍승주) : Tel. 206-767-8071/ Fax. 206-767-2784

6. 참가신청 접수처 :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필라 사무처

Tel. 215-635-5410 Fax. 215-782-1266 / headquarter@koreanfedusa.org

1135 W. Cheltenham Ave. #200 Melrose Park, PA 19027

**** 아래 참석 여부를 기재하셔서 3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람. ****

참가 및 위임 신청서

성 명 :

직 책 :

연락처 : (H) (O)

(C.P) (F)

주소

(E-mail)

1. 상기 인은 제5차 임원·이사·중앙 합동회의(상이 이사회 기능) 확대 연석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

① 도착 및 출발(일시 및 항공편)

② 호텔 사용일(월 일 - 월 일 / ()박)

③ Single room ()

Double room () : 특별히 Room을 같이 쓰실 분의 성함()

2. 상기 인은 개인 사정 상 제5차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회칙 제27조 (위임장)에 의거, 회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이사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

3. 기타

* 항공권은 2-3주전에 구입하셔야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 및 위임장은 3월 10일까지 총연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215-635-5410 Fax. 215-782-1266 / headquarter@koreanfedusa.org

1135 W. Cheltenham Ave. #200 Melrose Park, PA 19027)

2003년 월 일 서명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귀 중

2003년 3월 6일

모국 재외동포법 관련 대응 활동일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모국 재외 동포법 관련 대응 활동일지

- 1) 2001. 12. 10 각 언론사에 '재외동포 특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총연의 입장 발표
- 2) 2001. 12. 12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특별 대책반 구성.
 대책 위원장-미주 총연 회장, 실행 위원장 - 김경곤 법적지위위원장, 16개 중앙상임위원-특별위원으로 위촉.
- 3) 2001. 12. 12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발송. - 각 당 대표.
- 4) 2002. 1. 30 전 회원에게 재외 동포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협조에 관한 공문 발송.
- 5) 2002. 2. 24 제 19대 2차 임원·이사 중앙합동연석회의 분과별 토의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존속'에 관한 토의 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개정·존속'을 총연의 입장으로 재확인.
- 6) 2002. 3. 6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발송. - 이한동 국무총리, 이만섭 국회의장, 양성철 주미 대사,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 대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송정호 법무부 장관,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7) 2002. 3. 22 대한민국 국회 통일안보 포럼 주최, '재외동포 정책 공청회' 에서 이오영 회장 재외 동포법 개정 및 존속에 관한 위 총연의 입장에 관해 의견 발표.
- 8) 2002. 4. 4 각 언론사 및 회원들에게 재외동포 정책 공청회에서 총연 발표 요지 보도.
- 9) 2002. 4. 16 한국 이석연 변호사에게 재외동포법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 발송.
- 10) 2002. 7. 8 한국 이석연 변호사와 재외동포법 관련 미팅.
 참석자: 이오영 회장, 이준성 이사장, 김석주 중앙상임위원(NY)
- 11) 2002. 7.12 이오영 회장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본 건을 상정, 결의문에 포함. 당시 대표 (총연, 민단, 아시아 대표). 양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민주당을 방문, 의견 전달. 약속 받다.
- 12) 2002. 10. 8 이오영 회장, '세계 한민족 공동체 재단 대표자 대회'(총재 김덕룡 의원)에서 축사 및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존속을 촉구하다.
- 13) 2003. 1. 재외동포법 개정·존속에 관한 건의문 발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국회의장, 양당대표
- 14) 2003. 1. 13 김재숙 일본 민단단장에게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에 관한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 권유 공문 발송 및 하와이 운영 위원회에서 협조 요구.
- 15) 2003. 1. 24 재외동포법 개정·존속 관련 재외동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관한 공문 발송. - 각 지역 한인회장.